



부산 안남초등학교, 여자 초등부 복식 우승 부산 안남초등학교 김애린이 19일 충남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초등부 복식 경기에서 화순 안연초등학교를 맞아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남고 복식 결승 매원고 vs 웅상고

(김원호-강민혁조) (최현범-박무현조)

여름철종별배드민턴 고등부

남고단식 결승 우승훈-변정수 격돌
범서고 김가은, 여고 단·복식 결승행

매원고 2학년 김원호가 국내 배드민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9회 전국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고등부 남자 복식 우승에 도전한다.

1996애틀랜타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김영아 삼선전기 감독의 아들인 김원호는 대회 4강전에서 국가대표 후보선수인 강민혁과 조를 이뤄 진공과 이홍섭-이종찬을 상대로 2-0(21-14 21-17)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강민혁은 고등부 남자 단식에도 출전해 4강전에 오르며 동반 우승도 도전했다. 그러나 인천해양과학고 우승훈이 강민혁을 2-0(21-7 21-10)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웅상고 최현범-박무현조도 부산동고 김태완-이상민조에 2-0(21-13 21-12)으로 승리해 고등부 남자 복식 결승에 올라 20일 김원호-강민혁조와 올해 최고의 복식조를 가린다.

부산동고 변정수는 고등부 남자단식

● 제 59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9일 경기결과

- 남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전=변정수(부산동고) 2-1 김문준(광명북고), 우승훈(인천해양과학고) 2-0 강민혁(매원고)
- 여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전=김가은(범서고) 2-0 박상은(광주체고), 김향임(광주체고) 2-0 심유진(충주여고)
- 남자 중학부 단식 준결승전=안세영(광주체육중) 2-0 최성창(수원원일중), 오성원(수원원일중) 2-0 박관우(화순중)
- 여자 중학부 단식 준결승전=안세영(광주체육중) 2-0 강지민(성심여중), 정다정(구남중) 2-1 이소율(명인중)
- 남자 고등부 복식 준결승전=최현범, 박무현(웅상고) 2-0 김태완, 이상민(부산동고), 강민혁, 김원호(매원고) 2-0 이홍섭, 이종찬(진공고)
- 여자 고등부 복식 준결승전=김가은, 지정민(범서고) 2-0 이유림, 안채연(장곡고), 이소원, 백하나(청송여고) 2-0 김여름, 이정현(성일여고)
- 남자 중학부 복식 준결승전=김성준, 진용(당진중) 2-0 오성원, 인석현(수원원일중), 기동주, 정우민(하안중) 2-1 이민서, 이학재(제주시대부중)
- 여자 중학부 복식 준결승전=정다정, 박소연(구남중) 2-0 정희수, 권수민(남원중중), 안세영, 유아연(광주체육중) 2-0 윤다현, 최서연(충주여중)
- 고등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이상현(당진정보고), 황형정(공주여고) 2-0 이상호(서울체고), 조연애(창덕여고), 강우혁(이천체고), 이우림(장곡고) 2-0 조건애(전주생명과학고), 김예지(전주성심여고)
- 중학부 혼합 복식 준결승전=이민서(제주시대부중), 지영빈(제주여중) 2-0 김원서(화순중), 박수희(화순체일중), 최성창(수원원일중), 김이영(명인중) 2-0 장은유(정음중), 이경민(성심여중)

4강전에서 광명북고 김문준에게 2-1(16-21 21-9 21-11)로 역전승을 거두며 강민혁을 꺾은 우승훈과 우승컵을 놓고 맞붙는다.

고등부 여자복식에서는 범서고 김가은-지정민조가 장곡고 이유림-안채연 조에게 2-0(22-20 21-14)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청송여고 이소원-백하나도 성일여고 김여름-이정현조를

2-0(21-10 21-17)으로 제치고 결승에

합류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가은은 단식 4강전에서도 광주체고 박상은을 2-0(21-15 21-9)으로 꺾어 복식과 단식 2종목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단식 결승전 상대는 광주체고 김향임으로, 준결승에서 충주여고 심유진을 2-0(21-11 21-12)으로 이겼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볼거리 없는 기아차 한국여자오픈...메이저대회 맞아?

■ 같은 듯 다른 한·일 메이저대회

한국과 일본의 골프문화는 매우 흡사하다. 최근에는 '남저여고' 현상을 보이는 것마저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메이저대회의 모습은 같은 듯 다르다.

5월5일 일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골프장에서 열린 살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억2000만엔)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의 시즌 첫 메이저대회다. 그만큼 팬들의 관심도 높다. 올해는 나흘 동안 3만 4095명(협회 공식발표 기준)의 갤러리가 몰려왔다. 인기는 괜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인기 비결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팬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회를 만들고 있다. 올해는 미·일 장타대결이라는 흥행카드를 선사시켰다. JLPGA 투어의 장타자 레시 톱슨을 초청해 일본을 대표하는 장타 퍼퍼 와타나베 아야카와 맞대결을 붙였다. 당연히 팬들의 관심은 높았다. 첫날 1만958명이 골프장을 찾아와 흥행대박을 터뜨렸다.

두 번째는 문호 개방을 통해 경기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회엔 한국여자골프의 1인자 박성현이 출전했다. 박성현은 세계랭킹 상위(전년도 연

말 기준 30위 이내) 자격으로 출전했다. 주로 국내에서 활동해온 박성현은 JLPGA 투어에서 일본의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어 했던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일본 팬들에게 박성현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스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인지, 그 전에는 김하늘, 백규정 등이 이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팬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다. 이바라키 골프장은 36홀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회 기간 중에는 18홀을 코스로 사용하고, 나머지 18홀은 비워둔다. 대신 1개 홀을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하고, 또 다른 1개 홀에는 갤러리 휴게공간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코스 곳곳에도 크고 작은 쉼 공간을 마련해 팬들이 틈틈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어떨까. 19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장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내셔널 타이틀 겸 국내 여자골프 최고의 메이저대회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게만 보인다.

먼저 큰 볼거리가 없다. 박성현이라는 확실한 흥행카드가 있지만, 일본처럼 색다른 부족했다. 외국선수를 초

청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파 한명 보이지 않아 메이저대회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았다.

해외투어 활동 경험이 있는 A선수는 "메이저대회라고 하면 마음가짐과 기대감이 달라진다. 그러나 국내에선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늘 보던 선수들끼리 경쟁하다보니 메이저대회라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 그냥 연간 진행되는 대회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문도 똑똑 달랐다. 대회요강의 참가자격을 보면 외국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한 출전 규정이 없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가 한국여자오픈에 출전하고 싶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길은 대회조직위원회의 추천뿐이다.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정작 밖에서 들어오는 문은 열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여자오픈은 올해 30주년을 맞았고 총상금도 10억원으로 늘었다. 43년의 역사와 총상금 1억2000만엔(약 13억원)으로 진행된 살롱파스 월드레이디스컵과 비교하면 크게 뒤질 것도 없다. 그러나 두 대회가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내년에는 역사와 전통, 후원사의 노력이 헛되게 흘러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인천 | 주영호 기자 na1872@donga.com

"아빠 생신선물" 신지애, JLPGA 니치레이 레이디스 3연패

합계 12연패와 204타로 시즌 2승
통산 45승 "한국여자골프 최다승"

"아빠, 생신선물로 우승트로피 드릴게요. 이번 주에 오세요."

신지애(28)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니치레이 레이디스(총상금 8000만엔) 3연패를 달성하며 아빠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한국여자골프의 최다승이라는 새 기록을 썼다.

신지애는 19일 일본 치바현에서 열린 우라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4연패와 68타를 쳐 합계 12연패와 204타로 우승했다. 5월 호겐마도쿠치 레이디스에 이어 시즌 2승째이자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지애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45승을 따내며 구옥희(44승)를 넘어 한국여자골프 최다승 신기록을 세웠다.

2006년 데뷔한 신지애는 KLPGA 투어 20승, LPGA 11승, JLPGA 12승, 유럽과 여자아시아투어에서 1승씩을 거둬 통산 45승을 기록했다. 구옥희의 기록은 44승이다.



신지애(오른쪽)가 19일 일본 치바현에서 열린 JLPGA 투어 니치레이 레이디스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45승으로 한국여자골프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다. 신지애는 우승트로피를 이날 생일과 함께 선물 받은 아빠의 품에 안겼다. 신지애가 부친 신제삼씨와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신지애는 한국여자골프의 기록이란 기록을 모조리 갈아 치운 기록제조기다. 2007년엔 한 해 10승을 기록하며 KLPGA A 연간 최다승 기록을 세웠고, 한국선수 최초로 LPGA 투어 상금왕(2009년)과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2010년)에 올랐다. 데뷔 이후 3년 연속(2006~2008년) 세운 상금왕 기록도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생일날 새 기록을 달성해 의미를 더했다. 부친 신제삼 씨는 국내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바빠서 최근에는 딸의 경기를 보러 갈 시간도 없었다. 원래는 다음 주 올원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지애가 "이왕이면 생신날 오세요. 우승트로피를 선물로 드릴게요"라고 해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부친 신 씨는 "작년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딸의 경기를 보려왔다.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에 왔는데 진짜로 우승트로피를 선물로 받았다"며 기뻐했다.

신지애는 "아버지의 생일날 우승해 더욱 기쁘다. 그리고 통산 최다승을 기록했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 '신지애'라는 이름으로 1승, 1승을 보태면서 일관된 기록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쌓은 기록을 넘어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고 우승 소감을 드러냈다.

아버지에게 우승트로피를 생일 선물로 안겨드린 신지애는 상금랭킹 1위(7545만5000엔)로 올라섰다. 우승상금 1440만엔을 추가해 이보미(28)를 2위로 밀어냈다. 주영호 기자 na1872@donga.com

낭만돼지가 낭만주인을 찾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아 장사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앞서고 직장생활이 힘들어 장사할까 생각해 봐도 만만치 않고, 2-30년 한 직장에만 다니다 장사하려니 걱정이 앞설 때 낭만돼지와 상담하세요.

대박은 하늘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안정된 수입은 책임지겠습니다. 소자본으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찾아가는 생계형 창업, 간편한 레시피와 함께 즐기며 장사하는 낭만주인이 되세요.

낭만돼지
since 2012
Romantic Pig

특장점!

- 쉬운듯 심오나 남들은 어려운 노-하우
- 일차 전 처리된 편리한 원재료 공급
- 최소성에 동네 단골 고객 확보가 용이
- 축산물 전문업 경력 40년의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
- Take-out 접목으로 다양한 판매방식
- 최소의 리모델링 비용 투자와 업종변경으로 승부

아채볶음

치즈곰창

모듬곰창

알곰창

오뎅곰창

막창스쿠구미

오뎅

막창스쿠구미

막창스쿠구미

낭만돼지는 이틀 그대로 사탕이나 빵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옛날식 음식, 상상으로 모으려 하진 않지만 수 있는 정보만이라도 사탕 애드보레이터를 통해 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낭만돼지"는 이틀 그대로 사탕이나 빵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옛날식 음식, 상상으로 모으려 하진 않지만 수 있는 정보만이라도 사탕 애드보레이터를 통해 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낭만돼지"는 막창과 기타 부속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및 수입산 유통을 하고 있고, 축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거의 40년 운영 경험은 전문기술로 구성되어 국내 및 수입산 유통 브랜드의 장기간적인 경영안정에도 2000년 이상 일하며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노-하우를 모으고 도매 직매로 일한 오스업 사탕을 목표로 낭만돼지 직영점을 운영하여 있으며, 그렇게 모은 한 달 단계를 접하여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www.romanticpig.com

문의전화 02-2282-7990

낭만돼지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31 나빌 21, 301호(마장동, 인희빌딩)